

107호
WEEKLY THEME

등급 변별 지상주의 버린다
고교학점제 성취 가를
성취평가제 기사 중

하지만, 대입에서는 석차등급이 주로 활용되면서 성취평가제가 어느 정도 인화된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학점급 제도로 삼각기 어려웠다(그림 3). 사실상 유효성 상실된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성취평가로 인해 이과 수에 따른 성적 유효성을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 가운데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려면 온전한 성취평가제는 발전적인 전체 조안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목 체계를 재구조화한다.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융합선택 과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화웨이 선택 과목 전반에 도입된 성취평가제 개편안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을 평가하게 되어있지만, 공통 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 적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ISSUE 2
성취평가제 확대되면
성적 부풀리기 재연된다?

성취평가제가 확대하면 일선 학교에서 무더기로 높은 성취도를 배정 과정의 성적 부풀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1995~2004년 절대평가 도입했을 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들이 내신 성적을 분신, 입학 전형에서 내신 반영율을 줄이는 등 혼란이 일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2월 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개편 방안」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 성취평가 결과물 조사항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일반고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A와 B 수준의 비율이 다른 성취 수준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표 1). 고정 분할 점수 산출 방법에 비해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법에 의해 산출된 A와 B의 비율이 많았다. 대체로 C와 D 수준의 비율이 다른 수준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법에 따른 상대적 비율은 높았다.

성취평가제: A/B, B/C, C/D, D/E의 4개 분할 점수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두 가지 산출 방식이 있다.

- ① '고정 분할' 산출 방식
A/B(90점), B/C(80점), C/D(70점), D/E(60점)로 성취 평가.
- ② '단위 학교 분할' 산출 방식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동 분할 점수 산출. 학생 수준이 높은 학교나 학습 난도가 높은 과목에 분할 점수를 낮추기 위해 주로 활용.

데이터로 보는 입시 01

표 1.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성취 수준별 비율

성취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A	13.2	14.2	13.3	23.8	11.8	8.9	23.6	18.8	23.7	25.8	26.6	23.5	25.3	24.8	19.2	26	25	21.3	18.1	19.4	17.4	24.3	17.1	13.0	24.4	20.9	23.3
B	19.8	18.2	16.5	17.2	14.2	10.3	17.1	17.6	21	23.9	21.7	18.5	21.0	18.0	14.3	21.6	18.9	16.1	21.4	19.6	16.7	18.4	15.7	11.9	18.5	18.1	20.1
C	18.6	17.0	15.0	14.7	13.7	10.3	15.0	17.0	22.7	21.9	20.4	18.3	16.6	20.8	19.3	18.2	20.0	18.4	16.8	16.5	15.6	12.8	16.9	17.8	29.9		
D	15.8	15.1	14.2	11.4	13.2	11.0	12.1	10.7	9.9	16.1	16.5	18.5	17.2	18.3	20.7	17.1	18.3	18.4	15.9	15.7	15.9	13.4	15.2	14.8	13.7	13.4	6.7
E	32.3	35.6	42.0	32.8	47.2	59.5	32.2	35.8	18.7	12.3	14.8	20.3	16.5	20.7	29.2	14.6	18.4	25.6	24.5	26.9	33.2	27.6	36.4	47.5	26.4	29.7	20.0
합계	63.6				63.8				63.0				36.4					37.0	100						100		100
비율																			(1.554)						(1.573)		(1.605)

표 1.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성취 수준별 비율

단위: %, () : 학교 수

방법	연도	고정분할				단위학교분할				전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취도	A	13.2	14.2	13.3	23.8	11.8	8.9	23.6	18.8	23.7	25.8	26.6	23.5	25.3	24.8	19.2	26	25	21.3	18.1	19.4	17.4	24.3	17.1	13.0	24.4	20.9	23.3
	B	19.8	18.2	16.5	17.2	14.2	10.3	17.1	17.6	21	23.9	21.7	18.5	21.0	18.0	14.3	21.6	18.9	16.1	21.4	19.6	16.7	18.4	15.7	11.9	18.5	18.1	20.1
	C	18.6	17.0	15.0	14.7	13.7	10.3	15.0	17.0	22.7	21.9	20.4	18.3	16.6	20.8	19.3	18.2	20.0	18.4	16.8	16.5	15.6	12.8	16.9	17.8	29.9		
	D	15.8	15.1	14.2	11.4	13.2	11.0	12.1	10.7	9.9	16.1	16.5	18.5	17.2	18.3	20.7	17.1	18.3	18.4	15.9	15.7	15.9	13.4	15.2	14.8	13.7	13.4	6.7
	E	32.3	35.6	42.0	32.8	47.2	59.5	32.2	35.8	18.7	12.3	14.8	20.3	16.5	20.7	29.2	14.6	18.4	25.6	24.5	26.9	33.2	27.6	36.4	47.5	26.4	29.7	20.0
합계	63.6				63.8				63.0				36.4					37.0	100						100		100	
비율																			(1.554)						(1.573)		(1.605)	

성취평가제에서는 A/B, B/C, C/D, D/E의 성취도를 구분하는 4개의 분할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고정 분할' 점수 산출 방식은 A/B(90점), B/C(80점), C/D(70점), D/E(60점)를 고정 점수로 해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설정 방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동 분할 점수를 산출한다. 학생 수준이 높은 학교, 학습 난도가 높은 과목에 분할 점수를 낮추기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평가제
고정 분할 VS
단위 학교 분할

취재 조나리 기자 jonr@naeil.com
도움말 신동원(전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장)

성취평가제란?

성취평가제는 과목마다, 또는 각 단원마다 단계별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는 경우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각 교과 교사들이 학생의 평소 학습 태도나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취평가제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를 주는 '고정 분할' 산출 방식이 있고요, 이와 달리 경우에 따라 등급 분할을 변동하는 '단위 학교 분할(변동 분할)' 산출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아 100명 중 90명이 90점 이상을 받았다거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 100명 중 1명만 9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엔 성적 산출 분포가 고르게 나오지 않겠소?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이 '단위 학교 분할' 방식입니다. 두 가지 산출 방식 중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더 높은 방식은 당연히 '고정 분할' 산출 방식입니다. 그러나 위 표(3년간 성취 수준 비율)에 따르면 A와 B의 비율은 '고정 분할' 산출 방식보다 '단위 학교 분할'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위 학교 분할' 방식이 성적 부풀리기 경향이 더 드러나는 것일까요? 위 데이터에는 중하위 성취도에 해당하는 C와 D의 비율도 '고정 분할' 산출보다는 '단위 학교 분할'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 부풀리기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신동원 전 서울 휘문고 교장은 "석차 9등급제와 병행하기 때문에 등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어 성취평가제 과목이라고 해도 시험을 쉽게 출제할 수만은 없다"면서 "다만 해당 과목의 대입 반영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너무 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

▶ (내일교육)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데이터로 보는 입시'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 한글을 더 들어가 해설로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집자